백두산2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주체91(2002)년 5월 22일

시위투쟁을 어떻게 조직, 진행했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당시 시위투쟁을 어떻게 조직, 진행했는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위투쟁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의 단결된 조직적 역량으로 공개적인 항의투쟁을 벌이는 대중투쟁의 한 형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은 대중의 조직적 단결력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식수준을 실천투쟁속에서 높이며 투쟁대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매우 효과적인 투쟁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광범위한 군중이 참가해서 공개적으로 벌이는 투쟁이기 때문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과 빈틈없는 사전준비, 옳은 전술에 기초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지난 항일투쟁시기에 벌인 시위투쟁은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 분석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에 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회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 (영화 ≪조선의 별≫ 중에서

우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시위투쟁을 벌이기에 앞서 대중의 의식수준을 잘 고려하셨습니다.

시위투쟁은 공개적인 대중투쟁이기 때문에 투쟁과정에 물리적인 탄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만일 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지 못한 형편에서 주관적인 욕망이나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시위투쟁을 조직하게 되면 불필코 좌절과 패배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시위투쟁을 벌이기에 앞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활동을 착실히 진행해서 그들이 투쟁의욕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단결의 위력을 떨칠 수 있도록 조직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위투쟁을 벌이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투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시위투쟁은 광범위한 군중이 일시에 들고일어나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고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예견해서 면밀하게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위투쟁에 들어감에 앞서 시위에 참가시킬 군중의 수라든가 시위대오의 편성과 보위, 그리고 투쟁구호와 격문, 삐라, 시위노정과 시간, 그 방법과 지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통찰하고 세밀한 분공조직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28년 길림-회룡사이 철도부설반대투쟁과 길회선철도배척투쟁을 조직지도하실 때 바로 그 수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 시위투쟁준비를 위해 길림에 있는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책임자들의 회합을 가지고 몸소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해서 투쟁하자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서 시위투쟁계획을 내놓으시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분공조직을 하셨습니다. 분공조직에는 공청지부회의와 반제청년동맹원들의 회의를 여는 문제, 학생들을 굳게 묶어세우고 시위투쟁에 동원하는 문제, 대열편성문제, 규찰대의 조직문제,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의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표들을 파견하는 문제 등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에서는 삐라와 격문, 시위에서 들고 나갈 구호판과 성토문에 담을 내용도 상세히 토론됐습니다.

吉敦線延長其他로

吉林排日險惡化

天津排日도逐日深刻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보도한 당시의 출판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반드시 조중민중의 공동투쟁으로 돼야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구호들을 비롯한 모든 홍보물들을 우리 나라 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게 하셨고 또 거리에서 하는 홍보활동도 두 나라의 말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조직 성원들은 남의 집 헛간에 등사기를 설치해놓고 우리 나라 글과 중국글로 된 격문과 삐라를 수만매나 찍어냈고 또 수많은 청중들앞에서 우리 나라 말과 중국말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이같은 빈틈없는 준비작업에 기초해서 벌어진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은 길림시의 거리를 뒤흔들어 놓았고 우리 민족의 억센 투지를 시위했으며 적들에게 강한 타격을 주게 됐던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시위투쟁을 벌임에 있어서는 또한 시위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시위방법은 그에 참가하는 계급계층과 탄압정도, 시위목적과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각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흔히 적용된 시위방법은 어깨 겯고 투쟁가요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악대를 선두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방법, 여러가지 관습 및 세습적인 행사로 위장하고 행진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투쟁조직들은 사소한 군중집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각종 기념행사날에 군중시위를 능숙하게 벌였습니다.

1937년 봄,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는 신흥촌에서 5.1절시위를 조직했는데 그때 항일투사 이제순동지는 일제침략자들의 폭압으로 5.1절기념행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여우잡이≫라는 구실을 붙여 군중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붉은색을 무서워하는 여우의 성질을 포착해서 시위군중들에게 모두 붉은 기를 들게 하고 대열선두에는 큰 폭의 붉은 기를 들게 했습니다. 시위대열은 붉은 기를 휘날리며 조선독립만세의 구호와 함께 압록강이 굽어보이는 산능선을 따라 20도구 남석부락까지 행진해갔습니다. 행진과정에 시위군중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때로는 다른 구호들도 불렀습니다. 그날 압록강 좌우양안의 민중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희한한 시위를 통쾌한 심정으로 구경했습니다. 강건너 가림촌주재소와 국경수비대의 군경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

哈爾賓學生團設

吉會線反對高潮

九日警官隊와衝突

百四十八名負傷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보도한 당시의 출판물

→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시위투쟁을 어떻게 조직, 진행했는가
- 옥중투쟁을 어떻게 벌이셨는가
- 투쟁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가

군이 내습한 줄로 알고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소요의 진상을 감히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적들은 시위가 끝나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사민이라는 것을 판명된 다음에야 이 행사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렇다할 단서를 잡지 못하자 다시는 그런 놀이를 하지 말라고 호통만 쳤습니다. 이날 시위는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단결된 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시위투쟁을 벌임에 있어서 또한 그 대열을 잘 편성하고 능숙하게 지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위대열을 잘 편성하고 능숙한 지휘를 보장하는 건 시위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시위대열을 잘 편성하고 시위를 능숙하게 지휘해야만 시위과정에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발악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시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투쟁조직들은 시위대열을 잘 편성하기 위해 적들을 과감히 맞받아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전위대열을 꾸렸으며 동시에 후위와 양익측에도 견결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적들의 불의의 습격으로 시위대열을 철저히 보위할 수 있게 필요한 수의 행동대, 규찰대를 편성해서 배치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됐습니다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난 항일투쟁시기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벌이실 때 시위대열을 학교별, 지역별로 편성하시고 학생역량을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노동자, 농민, 시민, 소년들을 합류시키는 방향에서 대열을 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신다음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핵심으로 수십명의 규찰대를 무으셨는데 그중 가장 견결한 사람을 규찰대장으로 선출하고 그의 지휘하에 규찰대의 모든 성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객관적 조건과 변천되는 정세 상황에 걸맞게 대열의 결집과 분산, 전진과 정지, 고립과 우회 등을 능숙하게 배합하면서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만주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흉책을 꾸미고 있던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중국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밖에도 지난 항일투쟁시기 시위투쟁에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과 시위행진노정과 시위시작을 옳게 정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벌어진 시위투쟁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과정에 군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조직적 단결력은 더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당시 시위투쟁을 어떻게 조직, 전개했는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강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1일~13일

옥중투쟁을 어떻게 벌이셨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옥중투쟁을 어떻게 벌이셨는가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혁운동가,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감옥도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으로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새로운 투쟁무대로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에서도 변혁운동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초기 혁명활동시기 중국동북지방에 있는 길림감옥에서 벌이신 옥중투쟁은 바로 그걸 잘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1920년대말 당시 만주침공을 눈앞에 둔 일제침략자들은 전쟁준비를 가속화하면서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투쟁이 길림시는 물론 온 만주땅을 뒤흔드는데 당황한 일제침략자들과 중국반동군벌은 학생운동의 핵심세력인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었습니다.

이런때 뜻하지 않게 길림 제5중학교에서 단서가 잡혀 투쟁조직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동시에 수많은 투쟁조직성원들과 청년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이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맹활약하시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시어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비록 감옥에 갇히신 몸이지만 투쟁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때 **김일성**주석님께서 길림감옥에서 옥중투쟁을 어떻게 벌이셨는가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석님께서 옥중투쟁을 벌이셨던 길림감옥

주석님께서 옥중투쟁을 벌이셨던 길림감옥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먼저 구속자들의 처지개선투쟁을 힘있게 벌이셨습니다. 감옥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려고 해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외부와의 연계를 맺어 파괴된 투쟁조직들을 복구하려고 해도 구속자들의 처지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길림감옥형편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이씨성을 가진 간수를 교양하시어 그가 당번을 설 때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악질적인 간수들이 당번을 설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특히 뱀같은 간수장이 당번을 설 때는 더했습니다. 그는 문구멍으로 감방안을 엿보면서까지 수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사소한 자유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감옥에 갇힌 학생들은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어주기로 작정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림 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잡혀들어온 황수전이라는 학생이 이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같은 자청을 두고 학생들은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어 적어도 다섯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는가고 물어보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황수전은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후 그는 참대 젓가락 끝을 뾰족하게 깎아뒀다가 간수장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습니다. 간수장의 눈에선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감방안에 갇힌 학생들은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로 황수전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어 고생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감옥당국의 이런 처사를 두고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 사건을 구속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삼으시고 투쟁에로 학생들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학생들은 **김일성**주석님의 호소에 따라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학생들의 투쟁기세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학생들의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감옥당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그후부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감방안에서도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주석님께서 어

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시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시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구속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이같은 투쟁은 그후 연이어 벌어진 투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옥중투쟁을 벌이심에 있어서 또한 출옥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학생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출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 드셨습니다. 그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각하신 투쟁방법은 단식이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투쟁에 들어서셨습니다. 당시 길림감옥에 갇혀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결수였습니다. 감옥당국은 야수적 고문으로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심리를 질질 끌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학생사건관련자들을 계속 가두어두려고 했습니다.

적들의 이같은 흉심을 제때에 포착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출옥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심하시고 몸소 다른 감방들을 찾아다니시며 학생사건관계자들에게 군별당국의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 전체수감자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전체 수감자들의 이름으로 된 항의문을 감옥측에 제출했습니다. 항의문에는 죄없는 사람들을 무작정 구속해둘 것이 아니라 즉시 재판하라, 수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라, 수인들에게서 무거운 쇠고랑을 벗기라, 환자를 치료하라, 책을 마음대로 보게하라는 등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항의문을 받은 감옥당국은 당황해하면서도 항의문을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소요죄에 걸어 중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감옥당국의 위협에 대항해 단식투쟁에로 수감자들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단식투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투쟁에는 학생사건 관련자들은 물론 잡범들도 동참해 나섰습니다. 사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때 단식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잡범들까지 이 투쟁에 합류해 나서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식이 시작되자 매 감방들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나왔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까지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주석님께서 옥중투쟁을 벌이셨던 길림감옥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같이 감옥당국의 위협에 대항해 단식투쟁에로 수감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감옥밖의 동지들에게 연락을 보내시어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에 호응해 나서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감옥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 이 단식투쟁은 마침내 군별당국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조직전개된 단식투쟁은 승리로 끝나 학생사건으로 구속됐던 수많은 학생들이 석방됐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도 1930년 5월초에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셨습니다. 길림감옥을 나서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신감과 열정에 넘쳐 새로운 투쟁무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투쟁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굴함없이 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옥중투쟁을 어떻게 벌이셨는가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강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4일~17일

투쟁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당시 적들에게 체포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이 투쟁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가 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쟁조직의 비밀을 고수하는 건 변혁운동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조직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변혁운동을 가로막는 반동들의 야수적인 폭압과 고문, 악랄한 파괴암해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만일 투쟁조직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투쟁조직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변혁운동발전에 적지 않은 후과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운동가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다해도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를 빛나게 장식한 지난 항일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이 바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때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라자구에 파견되어 적구활동을 진행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은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투쟁조직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럼 그에 관해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원들은 적들의 그 어떤 회유기만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활한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투쟁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회유기만도 하고 또 참기 어려운 고문도 서슴없이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공청원들은 적들의 그 어떤 기만술책과 중세기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바로 이순희동지의 활동이 그걸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이순희동지는 라자구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초막을 아지트로 삼고 투쟁조직을 수많이 내왔습니다. 그는 군경들의 총검과 밀정들의 감시가 삼엄한 적구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던중에 이봉문이라는 악질적인 밀정놈에게 뒤를 밟혀 그만 붙들리게 됐습니다.

이순희동지를 체포한 적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자구의 지하조직을 알아내려고 그에게 모진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사실 그때 라자구의 지하투쟁조직의 운명이 이순희동지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라자구에 뿌려놓은 지하투쟁조직망이 다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참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던 적들은 이번에는 거짓약속과 감언이설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순희동지에게서 알아낸 것은 오직 그가 공청원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악에 바친 라자구 헌병대 대장놈은 마침내 이순희동지를 총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순희

이같은 총살을 선고하고도 헌병대 대장놈은 그에게서 비밀을 뽑아볼까해서 밀정인 이봉문이라는 자를 시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순희동지를 회유했습니다.

이봉문은 이순희동지앞에 나타나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이 시각밖에 없다. 꽃다운 네 나이가 아깝고 불쌍해서 그러니 라자구에 있는 지하투쟁조직원의 이름을 한사람이라도 대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고 하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순희동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피에 엉킨 머리를 쓰다듬고 찢어진 저고리춤에 손을 가져다더니 조그마한 회색주머니를 하나 꺼냈습니다. 순간 이봉문이라는 자는 사색이 되어 감방밖으로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형리들도 이봉문처럼 아우성을 지르며 따라나갔습니다. 그때 적들은 이순희동지가 꺼낸 회색주머니를 수류탄같은 무슨 폭발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물이 아니라 이순희동지의 아버지가 딸에게 준 귀중품이였습니다.

이순희동지는 사랑하는 조국의 흙을 품에 안고 적들을 향해 더러운 그 목숨이 무얼 그리 귀중해서 줄행랑을 놓느냐고 조소를 보내 교형리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세웠습니다. 더이상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사형장에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동지는 생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조직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혁명만세의 피나는 외침뿐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공청원들은 적들의 야만적인 고문과 회유기만에 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옥을 하나의 투쟁무대로 생각하고 견결히 싸움으로써 투쟁조직의 비밀을 철저히 고수하고 공청원의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서 감옥도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감옥을 투쟁무대로 삼고 견결히 싸운 공청원들 속에는 라자구에서 공청위원으로 사업하던 박호준동지도 있습니다. 그는 라자구에서 뛰어난 조직적 수완과 능란한 군중공작으로 적구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반일조직결성과 파업투쟁의 승리는 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작도중 적들에게 체포되게 되였습니다. 적들은 그를 체포하자 금시 라자구일대의 비밀조직을 다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쾌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였습니다. 적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써도 박호준동지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적들은 반주검이 된 그를 회유해보려고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년이다. 나이가 아깝다. 너를 믿고 홀로 사는 너희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는가.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너는 많은 상금을 받고 호강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되지도 않을 혁명에 대한 공상을 하지 말고 살길을 찾는게 어떤가≫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호준동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나를 키워준 그 위대한 분의 이름을 너희들이 수첩에 적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공산당은 이 원수를 갚아줄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변절해서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투쟁조직의 비밀을 지켰고 공청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저고리 앞자락을 활짝 헤치며 사형장으로 어떻게나 떳떳이 걸어가던지 적군 사병들조차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그런가하면 박호준동지의 장한 모습앞에서 한 애연가는 사형장으로 나가는 그의 손에 살그머니 담배를 쥐어주었고 또 처녀들은 그의 발밑에 꽃묶음을 던져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밖에도 항일투쟁시기 적구투쟁을 하다가 체포된 공청원들이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서 벌인 투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투쟁들중에는 다른 동지들이 한 비밀공작까지도 다 자기가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홀로 형장에 나선 18살의 공청원 임춘익동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혀도 서슴없이 끊은 그런 공청원의 지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청원들의 이같은 투쟁에 대해

> **≪항일혁명이 키워낸 공청의 첫 세대들은 이렇게 신의를 지켜 싸웠고 깨끗이 죽을 줄도 알았다. 그때 공청대열에서 교양육성된 공청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조직과 혁명의 이익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고 회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항일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공청원들은 투쟁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켜냄으로써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했으며 조국광복의 성업을 이룩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당시 적들에게 체포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이 투쟁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가 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강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8일~20일